

## 국내 팩트체크의 허브, SNU팩트체크



**정은령**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  
연구소 SNU팩트체크  
센터장

- 미국 메릴랜드주립대학교  
언론학 박사
- 동아일보 사회부 차장
- 2005년 관훈언론상 수상
- 언론중재위원

**SNU**팩트체크가 출범한 2017년 3월 29일은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41일 앞둔 시점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이어진 격변의 과정에서 정치적 지향을 달리하는 진영이 쏟아내는 허위정보들은 건강한 공론이 설 자리를 허물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고 있었다.

신뢰할 만한 정보가 유통되는 장의 출현이 절실했지만, 누가 그 일을 맡을 것인가는 난망이었다. 어떠한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도 기울지 않고, 사회적 신뢰도도 있으면서, 정보생태계의 건강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는 중립적 주체의 개입이 필요했다. 미디어와 저널리즘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공적 영역인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의 언론정보연구소가 그 역할을 맡기 위해 나섰다. 언론정보연구소는 사실성이 검증된 정보가 모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고, 언론사들이 이 플랫폼에 검증 콘텐츠를 제공하는 협업 시스템이 설계됐다. 방송·신문 등 15개 언론사의 제휴로 언론계와 대학이 연계한 SNU팩트체크가 시작됐다.

## 팩트체크, 익숙하고도 낯선 단어

기자는 ‘팩트’라는 말과 함께 산다. 따라서 ‘팩트체크’라는 말의 출현은 기자들에게 새삼스러웠고, 여전히 그 필요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내는 기자들도 적지 않다. 오늘의 팩트체크 저널리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적인 팩트체크의 연원을 살펴봐야 한다. 팩트체크 저널리즘은 1980년대 이후 미국 언론인들이 저널리즘 혁신운동으로 시작했다. 워싱턴 정가를 출입하는 기자들을 중심으로 화자의 발언을 인용구 안에 담아 전달하고, 그 사실성의 판단은 독자에게 떠넘기는 관행에 대한 반성이 일었다. 보도하는 사실에 대한 논평을 더하거나 편향을 보이지 않고 오직 ‘뉴스’만을 전해야 한다는 객관주의 보도규범이 오히려 선거 후보들의 노골적인 거짓말을 용납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었다.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한, 언론인은 (무엇이 사실이고 아닌지) 결론을 낼 권리가 있다”(Dobbs, 2012)며, 적극적으로 진실의 판정자 역할을 자임하는 기자들이 나타났다. 즉 현대적인 팩트체크는 화자가 말한 내용을 정확하게 받아쓰기하는 것을 넘어 그 발언이 사실인



SNU팩트체크센터가 주최한 ‘2018 팩트체크 컨퍼런스’. 풀리처상 수상자인 빌 아데어 듀크대 교수(중앙) 등을 초청해 허위정보에 대처하는 국제적 동향을 국내 언론인들에게 소개했다.

가를 기자들이 독자적인 조사를 통해 규명한 뒤 판정결과를 독자들에게 제시하는 ‘평가적 과정’(evaluative process)에 초점을 맞춘다.(Amazeen, 2013)

기자가 관찰과 전달에 멈추지 않고 해석과 판정이라는 평가적 과정에 개입했을 때는 검증대상으로부터의 반발이 따른다. 따라서 팩트체크를 하려는 주체들에게는 자신들의 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엄격한 규율이 요구된다.

전 세계 팩트체커들의 자발적인 연대기구인 국제팩트체킹연대(IFCN: International Fact Checking Network)가 2016년 수립한 준칙(Code of Principles)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한다. 팩트체크는 무엇보다 비당파적(nonpartisan)이어야 한다. 어느 한쪽에 편중된 검증을 하지 않아야 하며, 팩트체크하는 이슈에 관해 어떠한 정책적 입장도 취하지 않고 옹호하지 않아야 한다.

투명성은 달라진 미디어환경에서 뉴스 이용자들을 어떻게 만나야 할 것인가와 관련되는 덕목이다. 미국에서는 팩트체크를 하는 기자들에게 ‘네 일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라’(Show your work)는 원칙이 강조된다. 왜 팩트체크를 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밝히고, 검증 과정과 근거를 공개하는 동시에 정보 이용자들이 최대한 원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이퍼링크를 하는 것이 권장된다.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는 SNU팩트체크 플랫폼을 설계하며, 이러한 팩트체크의 원칙을 최소한이라도 실현하고자 했다. 첫째, 의견은 검증의 대상이 아니며 물적 증거를 기반으로 사실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사안만이 검증대상이 된다는 점을 원칙으로 밝혔다. 둘째, 검증에 반드시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했다. 이 근거자료는 전문가 몇 사람으로부터 코멘트를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기자들이 독자적으로 찾아낸 판례, 법·규칙의 조항, 검증 사안과 관련 있는 연구, 공공에 개방된 통계 등 가능한 물적 증거들을 제시하고 이를 하이퍼링크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셋째, 팩트체크한 내용을 수정하려 할 때는 반드시 수정사유를 밝히도록 했다. 물리적 현상이 아닌 사회적 현상을 다루는 저널리즘의 팩트체크는 결코 최종

적이지 않다. 검증 당시 미처 수집하지 못했던 증거들이 새롭게 발견되거나 오류가 확인됐을 때는 이를 투명하게 밝히고 수정함으로써 오히려 정보 이용자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저널리즘 혁신운동으로 시작된 팩트체크는 이른바 탈진실(post truth) 시대를 맞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팩트체크가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허위정보를 억지할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2017년 3월 이래 허위정보를 막기 위한 법안이 20개 이상 발의되었다. 그러나 이른바 ‘가짜뉴스’의 개념 규정조차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부른 법률적 접근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허위정보를 억지하는 궁극적인 방안으로 시민들이 허위정보에 대한 감식안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팩트체크를 통해 사실성이 결여된 허위정보들을 폭로하고, 미디어리터러시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SNU팩트체크 제휴 언론사들이 온라인 공간의 허위정보를 검증하는 사례는 갈수록 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불 피해 사진이 4월 발생한 강원도 화재 현장을 찍은 위성사진으로 둔갑해 트위터에 확산되는 것을 바로잡은 것(KBS),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세금 138만 원을 지원받았다’는 난민 혐오를 부추기는 소문을 검증한 것(연합뉴스·서울신문) 등이 그 예다.

## SNU팩트체크가 해온 일

SNU팩트체크 홈페이지에서는 두 개 이상의 언론사가 동일한 사안을 교차검증할 경우 ‘핫이슈’로 분류된다. 2017년 대선 때는 22건이 교차검증되어 이중 10건의 판정이 일치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한 검증 결과의 일치 여부는 팩트체크 신뢰도와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각국 팩트체크 연구자들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교차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지만 이를 시스템으로 구축한 사례는 SNU팩트체크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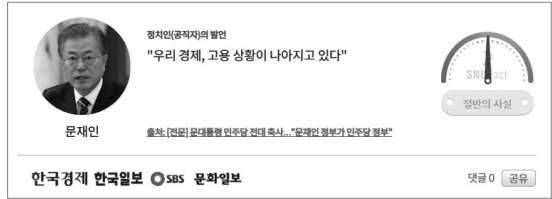
보수와 진보로 진영화

한 한국의 언론지형에서, 교차검증이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정치적 지향이 다른 언론사들이 사실적 증거를 바탕으로 서로 같거나 다른 해석을 SNU팩트체크라는 하나의 공간에 펼쳐놓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정보이용자들은 사안을 보는 상이한 시각을 접할 수 있고, 팩트체크의 품질을 비교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SNU팩트체크에 게시된 검증 결과는 네이버 뉴스홈의 ‘팩트체크’ 메뉴로도 연동돼 대중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SNU팩트체크는 제후언론사들이 게시한 1,530여 건(2019년 8월 현재)의 검증 결과를 메타데이터로 전환해 저장하고 있다. 메타데이터 요소는 검증 대상인 발언의 주체, 검증 근거와 출처, 언론사의 판정 결과 등 20여 개 항목이다.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팩트체크 자동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SNU팩트체크는 팩트체크 활성화를 위해 한국언론학회와 함께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지원 사업 자금을 출연한 네이버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킨다.

연 2회 시행하는 ‘팩트체킹 취재 지원’ 사업에서는 기획취재의 경우 최고 2,000만 원, 시스템 개발은 최고 4,000만 원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4회에 걸쳐 정부의 공약 검증 프로젝트인 ‘문재인 미터’(뉴스톱) 등 시스템 개발 2건, 기획취재 15건을 지원했으며, 이중 ‘전두환 회고록을 검증한다’(SBS), ‘최저임금 15달러는 미국인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나’(오마이뉴스)는 한국기자협회가 주는 ‘이달의 기자상’의 ‘전문보도부문’, ‘기획보도부문’을 수



SNU팩트체크의 교차검증 사례. 4개 제후언론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교차검증했다. 판정 결과는 ‘사실’부터 ‘전혀 사실 아님’까지 5단계와 판정유보의 직관적인 이미지로 노출된다.

상했다.

2018년부터 해마다 ‘팩트체크 대상’도 수여한다. 철저한 검증을 통한 사실성의 추구는 언론의 기본 덕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는 기자들에 대한 칭찬이 인색한 현실 때문에 제정됐다. 1회에 ‘19대 대선 가짜뉴스 검증’(SBS ‘사실은’ 팀)이 대상을, 2회에는 ‘영화 <그날 바다> 검증’(뉴스타파) 등 3개사가 공동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기자 교육 프로그램인 ‘팩트체크 디플로마’도 운영한다. 공모를 통해 선발된 기자들은 국내 8주 교육 후 전 세계 팩트체크기관들의 유일한 연례 컨퍼런스인 글로벌팩트(Global Fact)에 참가해 팩트체크 최신 동향을 접한다. 2018년 로마, 2019년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글로벌팩트에 각 10명의 기자가 참여했고, 2020년 오슬로 행사 참가자 공모도 11월경 시작될 예정이다.

## 팩트체크를 하는 기자들의 변화

SNU팩트체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한국 언론계에서 팩트체크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기자들을 돕는 것이다. 팩트체크를 하는 기자들은 한국 언론이 “벌어진 사실들을 그냥 ‘사실’로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받아쓰기 저널리즘을 수행함으로써 언론 수용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고 자성한다. 필자가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팩트체크를 장기적으로 수행해온 기자들을 심층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의미 있는 변화가 목격된다.

팩트체크를 하는 기자들은 독자들에게 기사를 이해할 수 있는 맥락을 제시하려고 애쓴다. 독자들이 목말라하는 것은 “하루 이틀 빠른 특종이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해설해주는 기사”(정은령, 2018)라는 자각을 갖고, 시청자가 가질 수 있는 상식적인 질문을 고려하고 시청자를 향해 말하듯 진행하려고 애쓴다. 팩트체크를 하는 기자들은 취재의 방향을 정해놓고 그에 맞지 않는 정보들을 ‘가지치기’하는 것과는 달리 결론에 열린 태도를 보여준다. 검증의 출처들을 최대한 밝히고, 가끔

적 원문을 뉴스 이용자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많은 매체들이 대동소이한 내용의 뉴스를 쏟아내는 상황에서 “다




SNU팩트체크센터의 디플로마 프로그램에 선발돼 2018년 로마에서 열린 Global Fact 5에 참석한 기자들이 '폴리티팩트'의 아론 슈록만 부장으로부터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미국 상황에서 유권자들에게 팩트체크를 전달한 사례를 듣고 있다.

아는 뉴스를 왜 해야 하나. 한 발 더 들어간 뉴스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정은령, 2019)는 변화에 대한 절박한 희구가 팩트체크를 하는 이유였다. 한편 현재의 팩트체크가 갖는 한계도 여신했다. 팩트체크를 하는 모든 기자가 “회사나 나 자신의 편향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털어놓았다.

현재 SNU팩트체크와 제휴하고 있는 27개 언론사는 매월 실무자회의를 갖는다. 느슨한 협력이기는 하지만, ‘사실검증’이라는 언론의 기본이자 최종적 과제를 놓고 서로 머리를 맞댄다. 이 자리에 오는 기자들 대부분이 공유하는 어려움이 있다. 팩트체크 전담팀이 꾸려진 소수의 언론사를 제외하고는, 팩트체크의 가치에 대한 의사결정권자들의 이해가 부족해 인적 자원이 적절히 투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 언론계에서 팩트체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영진과 뉴스룸 간부들의 팩트체크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한국 언론계에 팩트체크 규범이 정착하기까지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팩트체크의 기풍이 보도 전반에 퍼져나갈 때, 그것이 언론이 지향해야 할 ‘좋은 저널리즘’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이다. 열악한

취재환경에서도 팩트체크에 분투하는 기자들을 향한 지지를 SNU팩트체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정은령 (2018). 한국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특징. 언론정보연구, 55권 4호, pp5-53.
- 정은령 (2019). 팩트체크 뉴스와 한국 방송 저널리즘의 신뢰회복: 방송기자들의 팩트체크 뉴스 양식과 뉴스가치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방송문화연구, 31권 1호, pp47-101.
- Amazeen, M. A. (2013). Making a difference? A critical assessment of fact-checking in 2012. New America Foundation Media Policy Initiative Research Paper.
- Dobbs, M. (2012). The rise of political fact-checking. New America Foundation. February.